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작용하는 요인 및 정책적 함의

양 순 미(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I.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삶속에서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인정 그리고 관심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주변인물로부터 중요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기에 심리적 안정감 및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학령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문제행동을 더 높게 일으키는 것(Kaplan, 1978; Simmons & Rosenberg, 1975)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학령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유도하고 역기능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지역에 이혼, 별거, 사망 등의 생활사건으로 원가족이 해체되는 가구가 늘어나 비자발적으로 조부모 세대가 손자녀 세대를 위탁받아 도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조손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족안에서 성장하는 손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농촌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재조정되는 학령기에 위치해 있으나 역할모델이 되어줄 부모의 부재로 학령기의 보편적 발달과업 수행 및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유대의 결핍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생겨나는 가족 해체 및 결손은 아동들에게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 친구와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rowitz, 1995; Simons & Chao, 1996). 그러는가 하면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삶 자체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는 이중적인 굴레 속에 처해 있으며(양순미, 2010), 이러한 특성들도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부모의 개입이 손자녀가 가족해체과정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Edward, 1998)으로 밝혀져 손자녀의 정서·행동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성에 의해 예측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농촌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풍요 및 여유로움과 사람간에 유대관계와 정이 있는 농촌다움의 긍정적인 요소들(강다혜, 2007)은 농촌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이 가족해체 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순화시키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위에서 기술한 관계적 요인, 조손가족의 노출적 요인, 농촌다움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적응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의 생활실태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소화·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새롭게 유입되는 이들 연소 인구층들의 잠재적 역량을 확대토록 동인적 역할을 제공하는 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47개 농촌마을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손자녀이다. 조사는 계통추출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 중에서 47개 마을을 다시 계통추출하여 본 연구의 조사마을을 선정 한 뒤, 조사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7가구를 선정하여 조부모와 손자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10일 에서 8월 9일 까지로서, 농촌생활연구 현지조사 모니터요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면접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2. 척도구성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관심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10문항 척도를 8문항으로 수정한 것(박옥임, 2006)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손자녀가 인지한 조부모의 양육태도는 6항목의 명목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는 사랑, 격려, 칭찬과 관련된 항목과 간섭, 무관심, 야단과 관련된 항목으로 이분화하여 사용하였다. 손자녀가 인지한 조부모와의 친밀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양순미(2007)를 인용하여 전혀 친밀하지 않다(1)에서 부터 아주 친밀하다(5)까지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진 서열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가치관을 묻는 척도는 옥선화, 성미애와 신기영(2000)의 12문항 척도중 타당도 및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비용적 가치관에 관한 4문항을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비용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비용적 가치관 척도의 Cronbach's α 는 .63이었다.

손자녀의 부모 만남 및 전화접촉의 빈도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3)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각각 전혀 하지 않는다 에서 부터 거의 매일 까지 6항목의 서열형으로 구성하였다.

조부모의 손자녀 학교행사 참석 정도는 박옥임(2006)의 척도를 인용하였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1)에서 부터 매우 자주 한다(5)까지의 5점 Likert로 구성하였다.

조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10문항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65이었다.

3. 자료의 분석

회수된 277농가의 자료중 동일한 가구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조사되지 않은 17농가의 자료는 제외하고 총 26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9.2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및 생활실태

본 연구의 응답자는 조손가족의 손자녀로서 남자가 140명으로 53.85%, 여자가 120명으로 46.15%이다. 응답자중 남아의 연령은 평균 11.62세, 여아는 11.91세 이었다. <표 1>에 의하면 손자녀들의 58.07%가 조손가족의 경제수준이 어렵거나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고민하는 문제로는 조부모의 건강이 39.38%로 가장 높고 필요한 도움으로 24.79%가 숙제도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조손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된 배경에 대해 56.54%가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응답하였고, 손자녀들의 42.69%가 부모를 원망한 경험이 있으며 주된 원인으로 60.36%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향후 이혼 의향에 대해 25.77%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조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손자녀들의 72.27%가 사랑·격려·존중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27.74%는 간섭을 하거나·야단치거나·무관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손자녀들의 46.69%가 가사 일을 도우며, 친부모와의 전화 및 만남 정도에 있어서 각각 37.01%, 48.21%가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표 3>에 의하면 농촌지역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은 남자 손자녀가 백분위 69점, 여자 손자녀가 백분위 70점 수준이었으나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결과(이혜숙, 1999; Raymore, 1994)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박옥임(2006)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지역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은 백분위 69.5점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박미자, 2008)에 의하면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은 백분위 66점 수준으로써 본 연구에서 밝혀진 농촌지역의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농촌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풍요 및 여유로움과 사람간에 유대관계와 정이 있는 농촌다움의 긍정적인 요소들(강다혜, 2007)이 가족해체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순화시켰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학업수준은 남자 손자녀가 평균 3.76, 여자 손자녀가 평균 3.78로써 모두 중상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 농촌생활에 대한 선호 정도는 남자 손자녀가 평균 3.51, 여자 손자녀가 3.44수준이었다. 조부모와 친밀한 정도는 남자 손자녀가 평균 3.92, 여자 손자녀가 평균 4.15로써 이러한 차이는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조부모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들의 비용적 가치태도는 할아버지가 평균 14.61, 할머니가 평균 15.02 수준이었다. 학교행사 참석정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평균 2.45점으로써 ‘잘 참여하지 않는다’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자아존중감은 할아버지가 평균 32.67, 할머니가 평균 32.31수준이었다. 이상의 조부모 관련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변인	구분	통계량			변인	구분	통계량		
		남(n)	여(n)	계 (n(%))			남(n)	여(n)	계 (n(%))
성 별	남	140	-	140(53.85)	부모 원망 경험	있다	59	52	111(42.69)
	여	-	120	120(46.15)		없다	81	68	149(57.31)
	계	140	120	260(100.0)		계	140	120	260(100.0)
가족 경제 수준	매우 어려움	27	19	46(17.69)	부모를 원망한 이유	X2		0.04	
	어려움	51	54	105(40.38)		함께 살지 않아서	32	35	67(60.36)
	그저 그렇다	51	40	91(35.00)		자주 화를 내서	7	4	11(9.91)
	잘사는 편임	9	7	16(6.15)		가난해서	9	4	13(11.71)
	매우 잘사는 편임	2	0	2(0.77)		나에게 무관심해서	7	4	11(9.91)
	계	140	120	260(100.0)		기타	4	5	9(8.11)
	X2		3.54			계	59	52	111(100.0)
고민 하는 문제	외모	2	7	9(3.47)	조부모 와 함께 살게 된 배경	X2		3.38	
	학업성적 및 학습문제해결	46	49	95(36.68)		부모의 이혼	73	55	128 (49.23)
	친구관계	15	11	26(10.04)		부모의 경제적 여건	19	21	40 (15.38)
	가정불화	6	3	9(3.47)		사별	14	16	30 (11.54)
	조부모님 건강	59	43	102(39.38)		이유 모름	22	21	43 (16.54)
	가정빈곤	11	7	18(6.95)		부모의 재혼	12	7	19 (7.31)
	계	139	120	259(100.0)		계	140	120	260 (100.0)
X2		6.53			X2		2.58		
향후 이혼 의향	전혀 없음	12	14	26(10.00)	필요한 도움	숙제도움	26	34	60 (24.79)
	없음	24	17	41(15.77)		금전적 도움	30	24	54 (22.31)
	그저그렇다	35	22	57(21.92)		조부모 건강	5	5	10 (4.13)
	그리함	65	54	118(45.38)		없음 또는 모름	40	24	64 (26.45)
	매우 그리함	5	13	18(6.92)		기타#	27	27	54 (22.32)
	계	140	120	260(100.0)		계	128	114	242 (100.0)
	X2		7.22			X2		4.94	

기타는 부모와 같이 살도록 지원, 의논상대 지원, 컴퓨터 지원 등 25항목으로 구성된 응답 사례 수입

<표 2>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의 가족생활 및 학교생활실태

변인	구분	통계량			변인	구분	통계량		
		남(n)	여(n)	계(n(%))			남(n)	여(n)	계(n(%))
조부모의 양육태도 인지	사랑한다	83	63	146(57.03)	친구관계	관계 좋음	122	97	219(84.23)
	간섭한다	11	14	25(9.77)		거리감 있음	6	8	14(5.38)
	격려한다	12	12	24(9.38)		홍보는 것 같음	8	7	15(5.77)
	야단친다	20	13	33(12.89)		왕따 당함	1	4	5(1.92)
	존중한다	7	8	15(5.86)		친한 친구없음	3	4	7(2.69)
	무관심하다	4	9	13(5.08)		계	140	120	260(100.0)
	계	137	119	256(100.0)		X ²	3.63		
	X ²	5.34							
집안 및 농사일 도움 실태	가사일	47	73	120(46.69)	친구 사이가 좋지 못한 이유	조부모와 살아서	7	2	9(16.67)
	농사일	11	1	12(4.67)		집안 형편	3	3	6(11.11)
	돕는 일 없음	44	20	64(24.90)		자신의 성격	15	12	27(50.00)
	가사+농사일	13	12	25(9.73)		이사나 전학	2	3	5(9.26)
	가사+병간호	8	10	18(7.00)		기타	0	7	7(12.96)
	기타	14	4	18(7.00)		계	27	27	54(100.0)
	계	137	120	257(100.0)		X ²	10.31*		
	X ²	27.78***							
친부모 전화 연락 정도	없음	52	42	94(37.01)	방과후 학습 참여 여부	참여 함	88	82	170(65.64)
	2-3달에 1-2회	14	12	26(10.24)		참여 안함	51	38	89(34.36)
	한달에 1-2회	18	11	29(11.42)		계	139	120	259(100.0)
	계	136	118	254(100.0)		X ²	0.72		
	2주에 1-2회	12	8	20(7.87)	방과후 학습 참여 않는 이유	프로그램 미 실시	14	12	26(31.33)
	1주에 1-2회	32	34	66(25.98)		조부모의 비용부담	13	6	19(22.89)
	거의 매일	8	11	19(7.48)		기타#	17	21	38(45.78)
	계	136	118	254(100.0)		계	44	39	83(100.0)
X ²	2.98			X ²	2.86				
친부모 만남 정도	없음	57	64	121(48.21)	모르는 학습 문제 해결 방법	그냥 넘어감	45	33	78(30.00)
	2-3달에 1-2회	28	19	47(18.73)		조부모가 가르쳐줌	13	6	19(7.31)
	한달에 1-2회	15	19	34(13.55)		방과후 교실에서 해결	12	2	14(5.38)
	2주에 1-2회	3	5	8(3.19)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해결	17	13	30(11.54)
	1주에 1-2회	22	8	30(11.95)		인터넷 검색	11	13	24(9.23)
	거의 매일	7	4	11(4.37)		기타##	42	53	95(36.54)
	계	132	119	260(100.0)		계	140	120	260(100.0)
	X ²	9.80				X ²	12.07*		

23항목으로 다양하게 응답한 사례수임

38항목으로 다양하게 응답한 사례 수로써 대부분, 3,4,5번의 항목들을 복수로 조합하는 패턴임

*p <.05 **p <.01 ***p <.001

<표 3> 손자녀들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일반적인 수준

변인		통계량	
변인명	집단	M(S.D.)	t 값
자아존중감	남	27.70(4.31)	-.56
	여	28.00(4.29)	

<표 4>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변인			M(S.D.)	t 값	
손자녀 관련 변인	연령	남	11.62(2.42)	-.95	
		여	11.91(2.42)		
	경제적 수준	남	2.34(0.91)	.48	
		여	2.29(0.80)		
	친구 수	남	7.76(7.82)	2.73**	
		여	5.60(4.71)		
	학업성적	남	3.76(1.23)	-.07	
		여	3.78(1.23)		
	농촌생활선호	남	3.51(0.90)	.61	
		여	3.44(0.85)		
	조부모와의 친밀감	남	3.92(0.94)	-2.13*	
		여	4.15(0.76)		
	조부모 관련 변인	손자녀에 대한 비용적 가치관	할아버지	14.61(2.24)	-1.20
			할머니	15.02(2.37)	
학교행사참여정도		할아버지	2.45(0.96)	-.01	
		할머니	2.45(1.04)		
자아존중감		할아버지	32.67(3.96)	0.53	
		할머니	32.31(4.05)		

* p <.05 **p <.01

3.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상대적인 중요성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작용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모델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각 변인들의 분산 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1.01~1.61로써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었다.

농촌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모델의 25%를 설명하

였으며,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는 학업성적($\beta=.29$)이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하였다. 이어서 손자녀의 조부모와의 친밀도($\beta=.23$), 조부모의 학교행사 참석 정도($\beta= -.16$), 경제적 수준($\beta=.15$) 변인 순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성별, 연령,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된 배경 친부모 전화접촉 및 만남정도,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비용적 가치태도, 조부모의 자아존중감, 손자녀가 인지하는 조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취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터(Harter, 1983)의 주장이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학업성적은 조부모 친밀감과 $r=.20$, 조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수준과 $r=.18$ 수준으로 상관되어 있어서 조부모와의 관계양상 및 조부모의 관심 정도가 손자녀들의 학업성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황윤경 1996; paterson 등, 1994; Wills, 1985)과 일치하는 결과로써 조부모의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가 손자녀가 가족해체 과정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켰을(Edward, 1998)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모델 1에서 통제했던 손자녀와 친부모 관계 특성 변인을 투입한 모델 2는 전체 변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모델 3에 손자녀가 인지하는 조부모와의 관계변인을 추가하여 투입한 모델 4는 변량이 5.3%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25.4%를 설명하였다. 농촌선호도 변인은 모델 3까지 유의성을 지속하다가 조부모와의 친밀감 변인 등이 투입된 모델 4에서 유의성이 소멸하였으며, 조부모의 자아존중감 변인도 모델 3에서 유의했으나 모델 4에서 유의성이 소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들과 친부모와의 관계적 특성들은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손자녀와 조부모 친밀감 정도변인은 손자녀의 농촌 선호도나 조부모 자아존중감 변인을 매개하면서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이에 따른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자면

첫째, 농촌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는 학업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응답자의 36.68%가 고민하는 문제로 학업성적 및 학습문제 해결을 지적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24.79%가 숙제도움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손자녀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며, 노년기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손자녀들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방과 후 교실 등의 학교교육시스템이나 지역사회 대학생들을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친부모와의 만남 또는 접촉 정도는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손자녀와 조부모의 친밀감 정도는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학업성적은 조부모와의 친밀감 정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r=.20$)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는 조부모와의 관계적 인 특성이 여타 변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부모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개입이 손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발달과업 수행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조부모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친밀한 관계향상을 지원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의 교육 이수를 통한 장학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화 방안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도시 지역의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 보다 높았다. 또한 이들의 농촌생활선호도는 조부모와의 친밀감 변인을 매개하면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5.77%가 향후 이혼의향이 없거나 52.30%가 이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농촌의 여건을 감안할 때 새롭게 유입되는 이들 연소인구층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농심을 함양하며 후계인력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표 5> 농촌조손가족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작용하는 요인

변 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β)	b(β)	b(β)	b(β)
성별#	-.32(-.04)	-.40(-.05)	-.41(-.05)	-.16(-.02)
연령	.13(.07)	.15(.08)	.10(.06)	.13(.07)
경제수준	.71(.14)*	.61(.12)*	.82(.17)*	.74(.15)*
조부모와 살게된 배경##	.16(.02)	.06(.01)	.10(.01)	.31(.04)
학업성적	1.14(.33)***	1.11(.32)***	1.12(.32)***	1.00(.29)***
농촌 선호도	.84(.17)**	.83(.17)**	.84(.17)**	.40(.08)
친부모 전화접촉 정도		.01(.01)	.06(.03)	.07(.03)
친부모 만남 정도		.24(.09)	.20(.07)	.24(.09)
조부모의 손자녀 비용적 태도			.11(.06)	.13(.07)
조부모의 학교행사 참석정도			-.72(-.17)**	-.65(-.16)**
조부모의 자아존중감			.14(.13)*	.10(.10)
손자녀 인지 조부모의양육태도				.62(.07)
손자녀 인지 조부모와 친밀도				1.17(.23)***
intercept	17.60***	17.28***	12.77***	9.90**
F value	8.84***	6.89***	6.09***	6.73***
Adj R2 (Adj R2증가량)	.161	.161(.000)	.186(.025)	.254(.053)
Durbin-Watson D	1.77	1.79	1.84	1.84

남=1로 더미화, ##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1 로 더미화

* p <.05 **p <.01 ***p <.001

[참고문헌]

- 강다혜. 2007. 『농촌 그림책에 대한 도시와 농촌 아동의 반응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정책 과제』
- 김남중. 2004. 『소년소녀가정세대구성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선. 1996.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5. 『아동이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미자. 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옥임. 2006. 『농촌 조손가족의 손자녀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서동인·홍숙자·전영자·이정연·오윤자·이인수. 2000. 『현대 결혼과 가족(건강가족적 접근)』, 신광출판사.
- 양순미. 2007.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 5-40.
- 양순미·임춘식·오윤자. 2008. “농촌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손자녀에 대한 비용-보상적 가치관이 손자녀 양육 이후의 생활만족변화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8(2) : 145-178.
- 양순미. 2010. 『가정의 달 특집 칼럼 농촌조손가족 고통 함께 나누고 치유하자』, 농민신문(2010. 6. 21)
- 옥선화·성미애·신기영. 2004.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 1-18.
- 황윤경. 1996. 『청소년 또래 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dwards, O. W. 1998. “Helping grandkin-grand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 Expand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 : 173-181.
- Harter, S. 1983. *The development of the self-system*. Now York : Willey.
- Horowitz, J. 1995. “Conceptualization of parenting; examining the single parent family”, *Marriage and Family Review* 20 : 43-70.
- Kaplan. H. B. 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 253-277.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4.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65-37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ls, T. 1985.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in S. Cohen & S.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Academic Press Inc.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작용하는 요인 및 정책적 함의에 관한 토론

박 옥 임(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손가족은 가족해체의 급증과 더불어 파생되는 새로운 가족형태로 주목받고 있는데 조손가족 손자녀들은 가족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문제들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지칭한다.

특히 농촌의 조손가족은 도시의 조손가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빈곤한 젊은 세대들이 구직이나 교육 등의 여러 이유로 도시로 이주한 후 도시 정착의 실패한 부적응의 결과로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7년의 IMF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도시빈곤층을 형성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으로 가족의 원활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즉 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사고, 별거, 이혼, 맞벌이, 수감, 파산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급격하게 가족이 해체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직접 양육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농촌에 있는 노부모에게 자녀의 책임을 전가하는데서 최근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의 폭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촌 조손가족은 또 다른 사회 빈곤계층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농촌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매우 시의적절하며 정책적 대안 제시에 있어서 유효한 연구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하지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적인 조사가 쉽지 않은데 연구자는 전국 47개 마을을 표집 하였는데 어떻게 표집하였으며 그 분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서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고 있다.

<표 5>를 보면 독립변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볼 수 있지만 손자녀와 조부모 친밀감 정도 변인이 농촌선호도나 조부모 자아존중감 변인을 매개하면서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한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력만을 보는 데는 이 분석이 유효하나 매개변수를 보는 것은 다른 분석을 통하여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